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25. 하나님의 보좌 주변 광경

2013. 06. 2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4장 공부를 시작했지만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4:4~11]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일까요? 상징적인 것일까요?

답: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계시록에서 심판과 관련된 재료들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위엄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와 성도들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다시 11:19에 하늘 성전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거기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곱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 땅에 다 쏟아지는 장명이 나옵니다. 한 번 읽어봅시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16:17,18]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4장 장면과 같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도 되겠지요. 보좌에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계시적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보좌 주위에 두시고 계시로 보여주셨을까요?

답: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시편9:16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시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어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었혔도다.

개역성경은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번역들은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바른 성경) 심판을 행하셔서 자신을 알리신다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심판으로 여호와를 알린다는 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시인하지 않을 때,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해준 그 존재를 반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그 존재를 반납하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그 존재는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계4:1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지요.

[계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바로 창조주를 경배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심판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들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계시한 것이지요.

3.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아주 명백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런 심판의 도구들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실 확실한 이유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네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군요. 이미 1장에서 한 번 말씀하신 사실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일곱 등불 켜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이시지요. 왜 일곱 영이라고 했는지는 1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11:2의 말씀의 반영이라고 했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을 일곱 칭호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개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좌 주

위를 보여주면서 성령의 보좌 위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위 여호와와 보좌 배치가 삼각을 이루는 것 같다고 했지요. 아버지, 그 우편에 아들, 그리고 그 앞에 성령 이렇게 삼각 배치인 것 같습니다. “등불”이라는 말은 “람파데스”인데, “촛대”라고 번역된 “뤼크니아이”(1:20)가 아닙니다. 이 말은 “햇불”을 뜻합니다(겔1:13; 속4:12). 촛대는 일반적으로 실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햇불은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령의 다양한 사역과 속성을 암시하는 상징적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하여서는 1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보세요.

4. 예, [계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리바다인데 실제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까요?

답: 유리바다는 15:2에도 나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라는 뜻인지, 유리 같이 맑게 보이는, 한국에서 표현하는 대로 명경지수(明鏡止水)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수정과 같다고 했는데, 수정도 아주 맑은 것을 표상하는 표현으로 잘 사용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1) “악을 가두는 곳”으로 해석합니다. (2)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피”로 해석합니다. (3)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4) “보좌에서 베푸신 넓고 빛나는 장면의 장엄성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5) 보좌가 놓인 표면이 맑고 수정 같은 모양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바다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저는 4.5번 설명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다 유리바다는 상징적인 묘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지요.

5. 또 네 생물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이 보좌 가운데에도 있고, 보좌 주위에도 있는 것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답: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에스겔서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에게 옹위되어 있는 광경을 봅니다. 1장 전체를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끝부분만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겔1:22~28]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4장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계시 중에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 가서 보좌 주위를 본 것 같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는데, 땅에서 공중에 움직이는 보좌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생물들에게 들려 있는 광경이지요. 그렇게 보면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생물들은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데, 보좌를 받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현대 번역들 중에는 이 문장을 합리적으로 번역하느라고 보좌가 중앙에 있는데,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번역하기도 했네요.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런 번역이 쉽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아무튼 목사님, 에스겔서의 묘사와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생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 예, 제 생각에는 이것도 계시적 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6절 후반과 7절 8절에 네 생물의 모양과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 번 읽어봅시다.

[계4:6,7,8]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형상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에스겔 1:14에 기록된 그룹들과 같은 형상이지요. 그룹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한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눈은 보고 살피는 기능인데, 이 그룹들은 온 우주와 특히 이 지구를 구석구석 잘 살피는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에 피할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바다 밑이나 무덤 속까지라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강론하는 현장도 하나님의 눈에는 환히 다 들어날 것이고, 우주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도우시는 은혜가 목적이니라고 생각합니다.

7. 눈이 가득한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답: 형상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형상으로 계시된 생물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에스겔서도 같은 뜻입니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과 그 생명으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에 대하여서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는데요, 마치 소경 코

끼리 더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1) 초대 교회 때부터 사복음서를 의미했다고 주장합니다. (2) 신약 시대의 4명의 사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3) 이스라엘의 네 진영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4)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5) 생명과 지능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6) 장로나 천사들과 같이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2번째 설명 외에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군대를 네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유다 지파에 속한 군대,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셋째는 르우벤 지파, 넷째는 단 지파에 속한 군대입니다. 12지파가 각각 세 지파씩 한 부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각 부대는 깃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는 사자, 에브라임은 송아지, 르우벤은 사람, 단은 독수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상된 네 깃발은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 전체를 표상했습니다. 네 깃발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는 왕을 표상하고 송아지는 종, 봉사를 표상하고, 사람은 인성을 표상하고 독수리는 신성을 표상한다고 하지요. 그것이 4복음서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마가는 인류의 종, 누가는 사람 예수, 요한은 하나님 예수를 나타낸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상되는 것은 그분이 인류를 섬기시는 면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긴 종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인자이시며, 또한 원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봉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8. 그 생물이 눈이 가득한 것은 인류를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보살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겠군요?(그렇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말고지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답: 예수님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5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광경이 나오거든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곱 눈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또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4장에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은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생물들에게 가득한 눈은 성령의 역사도 표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광경이 가르치려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수종하는 많은 존재들을 거느리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것을 계시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생물을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네 생물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적 관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깃발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있는 것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와 구원으로 인한 것입니다. 4장에는 창조를 5장에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며 그들을 대표하여 네 생물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9. 네 생물은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날개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의 날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는 계시록 4장의 생물과 동일하게 생긴 생물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날개가 넷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생물이 그룹이라고 했지요. 그룹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는 천사의 칭호이고,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가졌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천사는 스랍과 그룹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의 생물들은 에스겔의 그룹과 같은 모습인데 날개 수가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날개가 넷이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그냥 보좌를 옹위하고 있는 그룹을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 날개 한 쌍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 같은 그룹인데 계시록에는 날개가 여섯이니까 요한은 보좌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 형상을 보았고, 에스겔은 땅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룹 날개를 다 합하면 24개인데, 24장로와 수가 같습니다. 24는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의 반(班) 수입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봉사를 위한 수이지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신속하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는 상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고 여섯 날개로 신속하게 필요에 응답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봉사를 잘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그 설명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신속하게 완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답: 그렇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는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찬양의 화음은 너무 아름다워서 밤낮 들어도 결코 싫증이 나지 않는 찬양일 것입니다. 그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입니다. 거룩하다 삼창은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과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자존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11. 그렇군요. 우리도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하겠군요. (당연하지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로 아버지의 보좌를 공개하시고 보좌 주위의 광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봉사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